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ACA	김행자	목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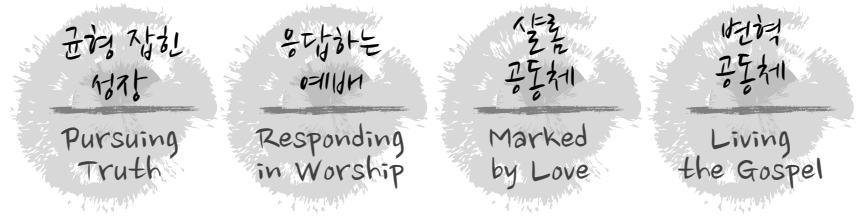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8/27	9/3	9/10	9/17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다같이	테이블
어린이 돌봄	장경민, 박주애 / 박영미, 유재연	임은숙, 최정아 / 이찬미, 황진희	신윤선, 이주영 / 이윤경, 이창열	장경림, 최설아 / 김새롬, 전해경
주차 봉사	Chris Steenkolk / 이장춘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예배 안내	바마코 (8월) & 우간다 (9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열매를 맺도록 머물러 있는 것 Abiding Towards Fruitfulness

본문: 요한복음 15:1-11
설교: 빌 독테롬 박사

요한복음 15장 1-11절

-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절)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예수님의 말씀

2.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 꼭 머물러 있게 하시며 열매를 맺도록 정성을 다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1.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성도님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협조하기 위해 성도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매일 잠시 시간을 내서 성령님의 선물을 간구하고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성도님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개발시킬 때에 성령님께 협조하십시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나이지리아 (Nigeria)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50%), 기독교(40%)
- 인 구: 약 191,836,000명, 기독교인: 95,918,000명
-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12위
- 수 도: 아부자(Abujua)
-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2017년 세계박해순위(World Watch List, WWL)에서 나이지리아(Nigeria)는 박해 점수 78점으로 12위에 올랐다. 작년의 기록에서 변동 없이 그대로다. 나이지리아 북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여느 때와 같이 강도 높은 탄압과 극단적인 폭력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2017년도 WWL 집계 기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의 군사작전은 보코하람(Boko Haram,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점령했던 북부 지역에서 보코하람을 몰아내는 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들벨트(Middle Belt)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하우스-플라니 족(Hausa-Fulani)의 무슬림 유목민과 정착민들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박해상황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 박해는 대부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보코하람(Boko Haram)과 연관되어 있다. 보코하람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단순히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샤리아 법(이슬람 율법)을 시행하는 북부 12개 주에서 박해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하다. 현지 정부와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표출할 자유가 전혀 없다. 1980년대의 마이타트시네 폭동(the Maitatsine riots)과 2001년의 샤리아 법 정식 시행 과정에서 보여진 폭력적인 전통과도 같이,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이슬람 성전주의자들(jihadist)의 과녁이 되어왔다. 이러한 기류 위에 보코하람(Boko Haram)은 지난 수년간 체계적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해왔다. 그들의 사상과 사회 운동은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4년 8월에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Borno State) 그워자 시(Gwoza)에서 과격주의 이슬람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슬람 국가 설립을 선언했다. 해당 세력의 확장은 현재 정부군에 의해 진압된 상태이지만, 보코하람에 의한 폭력은 여전히 수천 사람(특히 기독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지역 전체에서 기독교와 무슬림 인구 상호간에 불신과 갈등을 조성시키고 있다. 보코하람 외에 일부 무슬림들 역시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하우스-풀라니 족(Hausa-Fulani) 무슬림 유목민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주로 밤에 미들 벨트 지역(Middle Belt region)에 몰려들어 여성이 든 어린 아이든 가리지 않고 무고한 시민들을 해친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베누에 주(Benue), 카두나 주(Kaduna), 나사라와 주(Nasarawa) 그리고 타라바 주(Taraba)의 주 정부들은 하우스-풀라니 무슬림 유목민들을 위한 방목지를 내어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곧 정부가 현지 기독교인들의 토지를 강제 징수할 것을 의미하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농지와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민족적 적개심(ethnic antagonism): 나이지리아 일부 지방에서 민족적 적개심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동부 지역에서 애니미즘 기독교인들(정령숭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보도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 민족 구분은 곧 종교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적 적대감은 곧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폭력을 반영한다.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금품 갈취 및 납치와 연관된 조직 범죄 네트워크로 인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의 만연하는 부정부패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보코하람과 풀라니 유목민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정부의 보안은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다.

박해배경

2015년 5월 29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가 나이지리아 헌장 선포 이후 제 4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연설에서 부하리 대통령은 번영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슬람 가치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생각도 신도 없는 집단"인 보코하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반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공약했다. 사실 나이지리아 군대는 보코하람을 점령 지역에서 몰아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인 보코하람에 대한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들 벨트 지역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세계박해 순위 순위 발표 기관인 월드워치 리서치(World Watch Research)가 앞서 발표했던 것과 같이, 보코하람의 영향 아래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하우스-풀라니 무슬림 유목민과 정착민들에 의한 박해는 수천 기독교인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교회 수백 곳과 재산이 훼손되었다. 이슬람교의 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기독교 박해는 나이지리아 전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나이지리아는 몇몇 구역으로 나뉠 수 있다. 북부(19개 주와 아부자 연방 수도 지구는 무슬림이 주를 이루고 미들벨트 지역에는 기독교인 인구가 더 많다. 미들 벨트 지역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북부 12개 샤리아 주의 일부가 되었다. 예를 들어 북부 카두나 주(Kaduna-North)는 무슬림이 다수이고 남부 카두나 주(Kaduna-South)는 기독교 인구가 다수이지만 카두나 주 정부는 무슬림이다. 남부(17개 주)는 대부분 기독교 사회지만, 남서부 요루바 지역(Yoruba)에는 많은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복잡한 민족성을 띤 국가 중의 하나다.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는 자원 분쟁과도 겹쳐진다. 인권활동가들과 관찰 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과격 이슬람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한 기독교인 살해와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세계인권선언(UNDH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에서 명시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보코하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슬림과 기독교사회 간의 전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나이지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평균적인 억압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12.289) 이며, 작년도 세계박해지수, 12.271 보다 상승했다.
- 나이지리아의 박해는 전반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적 단일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박해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북부 지역에서는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 나이지리아의 폭력 점수는 16.117로써, 최고점수를 기록했던 작년(16.667) 비해 줄어든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 나이지리아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폭력과 연계되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특정 상황에 의해 야기된다. 무슬림들이 우세한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기독교인들이 우세한 지역은 박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인영역:**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바우치 (Bauchi), 고펜보(Gombo), 요베 (Yobe), 보르노(Borno) 주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박해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이나 성경을 점점 더 감추려 하고 있다. 사실상 가니예(Ganye), 자다(Jada), 보르노(Borno)와 요베(Yobe) 주에서는 무슬림배경신자들을 제외한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관련 물품과 서적들을 숨기고, 폭력의 상황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 무슬림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닌다.

***가족영역:** 신앙과 관련된 억압은 이슬람 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 안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주변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기독교인은 이슬람 법에 따라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없다. 기독교 소녀들은 유괴와 강제 결혼의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보고에 따르면 심지어 몇몇 이슬람 지역에서는 기독교 소녀들을 유괴하여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영역:** 지역사회 영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박해는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이슬람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어린이들은 이슬람 교리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 받고 있으며, 기독교 청소년들은 중, 고등학교 또는 막대한 자금과 시설, 양질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고등 교육기관의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 학생들은 2류시민으로 취급 받고 간주되기도 한다. 대체로 기독교 공동체는 정부로부터 방치돼 있다.

***국가 영역:** 국가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북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직원 채용에서 제외되며, 즉각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 받기도 한다. 이슬람 법이 적용되고 있는 12개 주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히스바(Hisba: 이슬람 경찰)와 다아와 (Da'awa: 이슬람 단체)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는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북부에 위치한 또 다른 7개 주에서는 억압이 덜하긴 하지만, 일부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영역:** 북부 지역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이슬람 세력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슬람 지역 전체로 확산돼 교회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과 부흥을 막기 위한 과격한 무슬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폭력:**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의 가족들이 남부에 위치한 카두나(Kaduna), 베누 (Benue), 나 사라와 (Nasarawa) 지역에서 추방당했으며, 그 배후에 하우스-푸라니(Hausa-Fulani) 무슬림 유목민들이 있다고 한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수천명의 기독교인 가정이 추방돼 나이지리아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보코하람(Boko Haram)의 활동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 카메룬, 체드, 니제르 공화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같은 보고서 에 따르면 교회와 기독교 시설들이 과격 무슬림들에 의해 공격 당했고, 몇몇 교회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으며 동북부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추가 공격의 두려움으로 폐쇄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세계박해 지수 보고기간 동안 십여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 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7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2017년 가을학기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와 한인 헬로우십에서 별도의 안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은 9월 10일 (주일)까지 헬로우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	일정	기간	인도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1)	개별논의	4주	개별논의
풍성한 삶의 첫걸음 (1:1)	개별논의	4주	개별논의
믿음의 삶	주일 2-4pm	11주: 9/17-12/10	최규진 목사
여호수아 비즈니스 학교 (JBS)	주일 2-4pm	12주: 9/17-12/17	최정훈 형제
예비목자훈련	주일 4:30-6:30pm	10주: 9/17-11/19	목장사역팀

2. 특별새벽기도회 (9/5-9)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특별새벽기도회로 초청드립니다.

- 일시: 9월 5-9일 @ 평일 5:30am, 토요일 6am
- 장소: 대예배당 (평일), 음악실 (토요일)

3. 금주 한인부 수요예배 (8/30)

금주 한인부 수요예배에서는 장광의 선교사님 (YWAM)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 출타: 최규진 목사 (8/30-9/3)

최규진 목사는 8/30-9/3까지 휴가를 갖습니다.

5. 날마다 솟는 샘물 9월호 (\$4/권)

9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지역사회

1. 2017 오레곤 밴쿠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선교대회

오레곤/밴쿠버 한인 교회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있으며,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선교집회가 동시간에 이뤄집니다.

- 주제: 이슬람, 난민, 중국가정교회, MK사역, 일상선교
- 강사: 김영섭 선교사 (요르단/바울선교회), 김연화 선교사 (신장 위그르/MKC), 김종관 목사 (다송교회/전 카자흐스탄 선교사/PGM 훈련원장), 박모세 선교사 (터키/합동/GMP), 윤에스터 선교사 (중국/YWAM), 허지연 선교사 (MKC 대표), Steve Kim 목사 (벨엘 어린이 사역자), Ruth Jordan (빌리지/선교/어린이 사역자), Daniel Lee (에덴 다민족 교회 사역자), James Ko (에덴 어린이 사역자), Eunice Han (Ezemiah), Chealin Won (Romania)
- 일시: 9월 15일 (금) 7:30pm
9월 16일 (토) 9:30am-12pm & 7pm
9월 17일 (주일) 4pm
- 장소: 에덴장로교회
- 주최: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제자의 특색' 시리즈 동안, 빌리지 공동체가 계속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배양 하는데 함께 애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계속하여 미국 내 인종 간의 화합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상처입은 이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대함과 평화를 부어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2. 어린이 사역 리더쉽 훈련 (9/9, 9-11am @ Fellowship Hall)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을 위한 리더쉽 훈련이 있습니다.

3. 여성부 성경공부: The Well (9/26부터, 매주 화요일, 9-11:30am / 6:45-8:30pm)

9월 26일부터 여성부 성경공부 The Well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오전반(9-11:30)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모임이 있고, 0-3세 아이들(2013년 9월1일 이후 출생)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후반(6:45-8:30)은 영어모임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비의 브로셔나 홈페이지 (women.vbconline.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프리스쿨 등업 안내 (9/2,3)

오는 9월 2/3일 프리스쿨 아이들의 등업이 있습니다.

- 2,3세: Tiger Room
- 4세: Monkey Room
- 유치원생: Flamingo Room

* 토요 저녁 예배, 일요일 9시 예배에서 유치원생은 Monkey Room에 모입니다.